

KACF, 누적 기부금 2천만 달러 달성, 300만 달러 규모 신규 커뮤니티 보조금 발표

NEW YORK, NY —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KACF)이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으로 KACF는 설립 이후 누적 기부금 규모 2천만 달러를 달성하게 됐다.

KACF는 재미 한인 커뮤니티 내에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수천 명의 기부자들의 집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자선 리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역사상 현재까지 KACF의 투자는 전국 126개 비영리단체의 518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국내에 한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KACF 회장 윤경복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주류 재단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투자하지 않았고, 선의와 지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속적인 영향으로 전환할 인프라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정표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부족함의 시기를 지나,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단계로 나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이 문화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 굳건해져 어느 한 번의 위기도 넘길 수 있는 지속되는 나눔의 문화를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KACF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넘어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재단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성장기를 맞이했다.

이번 최신 보조금 지원은 총 42개 비영리단체에게 300만 달러를 배분하며, 사회 서비스, 장애인 및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직업 훈련, 청소년 프로그램, 식량 및 의료 접근성 확대, 시민 참여와 옹호 활동 등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일부 보조금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 서울메디컬그룹, YS 김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후원되었다.

올해 보조금 수혜 단체들은 미국 10개 주에 걸쳐 있으며,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에서는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KACF의 전국적 영향력과 확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KACF 부회장 브레넌 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국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이후, KACF의 그랜트가 주요 자선 기관으로부터 처음 받아본 지원이라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KACF가 100건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필요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저희 활동은 지금 이 순간,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응답하겠다는 사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KACF 보조금 수혜 단체 전체 목록을 포함한 발표 내용은 kacfny.org/grantee-partner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bou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KACF): As the first and largest community foundation in the U.S. mobilizing Korean Americans through philanthropy, KACF has united generations of donors to give back \$20 million to strengthen the economic security of immigrant families and individuals. We are proud to be leading a philanthropic movement by and for our community to build a thriving future for all.